

누구나 알지만 잘은 모르는 그곳, 이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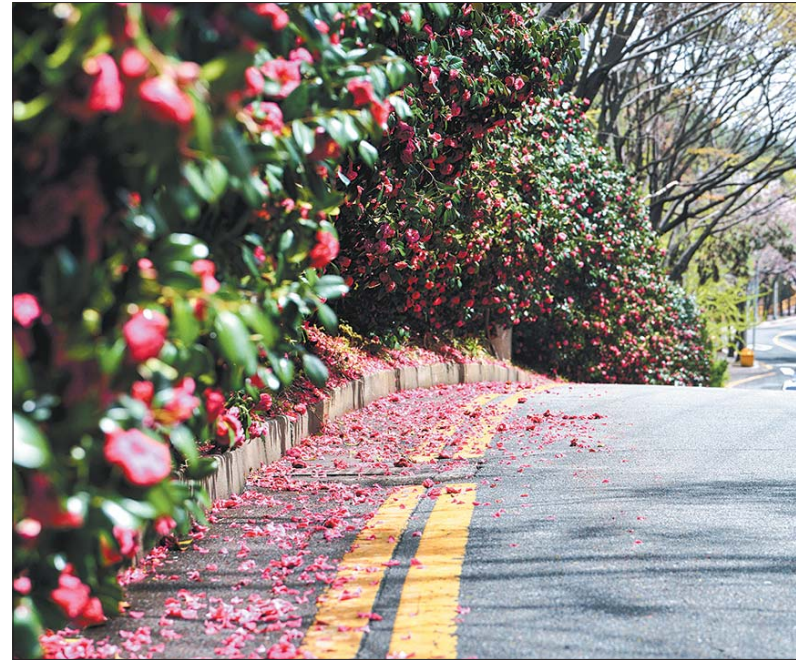
짙은 소금 내음 풍기는 분개염전을 바라보며 나무다리를 건너면 얇은 물속에는 섬이 자라는 작은 섬자리 해수욕장이 보인다. 동생말을 지나 갯바위를 타고 숨바꼭질하듯 남떠러지 길을 타거나 섬자리에서 바로 고갯길로 올라 빠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기대로 가던 어릴 적 봄 소풍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기대 오르는 길가에 이기대성당이 서 있어 첨탑의 십자기는 우리들에게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말하는 듯하다. 공영 주차장 맞은편에 백련암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내리막길 왼편 동백나무 숲 아래에는 두 기생의 무덤이 외롭게 솟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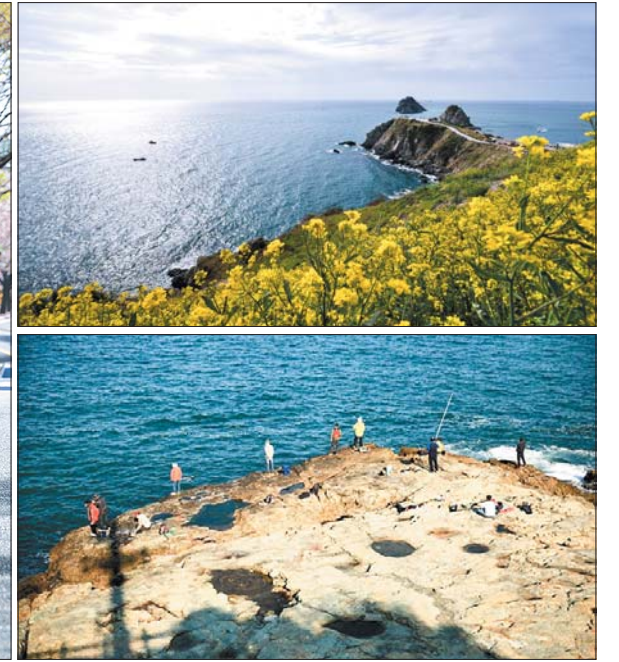
이기대도시자연공원 바다는 국가지질공원의 명성에 걸맞게 해식애와 해식동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중 수백 명이 앉아도 될 만큼 넓고 평평한 너른바위는 화산과 파도에 의해 생긴 '돌개구멍'이 마치 공룡발자국처럼 파여져 있다. 이곳 뒤 석벽에는 이기대라는 붉은 글이 새겨져 있는데 두 기생의 전설이 있는 장소로 추정된다. 이 근처에서 해국, 산나리 등 많은 야생화는 물론이고 반딧불이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그리고 어లు마당, 해녀막사, 구리광산, 송림공원, 자갈마당, 각시당, 해녀막사 등이 있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어లు마당은 '해운대', '적도의 남자', '스노우레인 2' 등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돼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서 해운대를 바라본다.

이기대에 대한 공식 문헌은 경상좌수사였던 이형화가 '내역지(萊蕨誌)' 산천조(山川條)에 기술한 것이 유일하다. '左營南十五里 上有二岐塚云(좌수영 남쪽 15리에 규모가 큰 두 기생의 무덤이 있어 그렇게 불린다)'라고 적혀 있다. 이것만으로는 두 기생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큰 무덤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기총(二岐塚)이 있는 지점 근처의 묘자리가 의부지(義婦地)로 기록된 된 경주이씨의 족보로 보아 두 기생은 의로운 일을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항토사학자인 최한복(崔漢福, 1895~1968)이 말한 이기대 전설의 내용은 이렇



3월이 되면 이기대 해안도로가 동백꽃으로 붉게 물든다. 유채꽃이 인상적인 오륙도 내려가는 이기대 산책길. 임진왜란 때 왜장을 깨고 순절한 장소로 알려진 이기대 너른 바위.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다.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수영성을 함락하고 부근 경지 좋은 곳을 찾아 축하잔치를 열었다. 그때 수영의 한 의로운 기생이 자청해서 그 잔치에 참가하여 왜장에게 술을 잔뜩 권하고서는 술 취한 왜장을 끌어안고 물속에 떨어뜨려 죽였다. 그래서 뒷날 이 곳을 의기대로 부르게 되었다."

그는 기생이 살았던 곳이 수영이라고 하였고, 기생이 왜장과 기생의 이름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를 취재한 박주홍 교수가 의기각(義妓閣)이라도 세워주어야겠느냐고 제기하기도 했다. 1993년에 박주홍

교수로부터 '이기대나, 의기대나'에 대한 매스컴의 논란이 시작되었으나 흐지부지한 실정이다.

문헌동 출신 팽태욱 작가는 답사와 고증을 거쳐 '소설 이기대'를 출간하였다. 남구에 대한 애정과 노고가 녹아든 역작이다. 이기대 주인공인 두 기녀에 대한 고증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다. 이제 최한복 선생의 이기대 전설, 이형화가 남긴 이기대 유래와 전설은 전설 그대로 남겨두자. 전설을 가꾸고 다듬어 보존하였으면 한다.

이기대 해안도로에는 동백꽃이 붉게 피고 있다. 3월이면 붉은 동백꽃은 피지도 못하고 진 두 기녀들의 혼인 양 도로 위에 뚝뚝 떨어질 것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이름도 공작도 말하지 못하고 묻혀 있는 의기들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붉은 동백꽃이 피었다가 지면, 4월에 벚꽃이 만발할 것이고, 너른 바위에는 낚시꾼들이 모여들 테니 이기대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공기화(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이기대 해안길은 해파랑길·남파랑길 출발점

동해와 남해가 갈리는 이기대 해안길은 초장거리 걷기코스인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의 출발점이다.

해파랑길은 오륙도공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

라 걷는 770km 걷기 코스. 동해의 떠오른 해와 파란 바다를 걸듯 무삼아 걷는다는 의미로 '해파랑'이라 이름 붙였다. 2009년 조성되기 시작해 2016년 정식 개통됐다. 그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륙도

해맞이공원을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걷는 해파랑길 770 걷기축제를 한 달간 개최하기도 했다.

남파랑길은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까지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의 남쪽 길이다.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민 공모를 통해 명명했다. 이처럼 4.6km 이기대 바닷길은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시가 실시하는 맞춤형 취업 희망자 모집 **부산시 전액지원 (14기생모집)** (월수당 25만원지급)(선착순 모집)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수업내용	정원	자격
엑셀, 파워포인트 사무요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캐드자격증 *수료후 취업*	2019년 3월6일 ~ 6월18일 (5시간)	3개월 10시부터 3:20까지	*엑셀 자격증 *파워포인트 자격증 *캐드기초, 실무 (자격증1, 2급자격증)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사무요원 및 도면작성 및 수정	20명 (선착순)	만18세이상 연령제한 없음

*만18세이상~연령제한없음 20명 모집(주부, 실직자, 고교 및 대학졸업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 옆, 데쌍뜨 8층

James. K. 누구나 말하는 영어

—모집대상(성인 및 어머니)
○ABC 왕초보 영어 <숙성반>
○여행 및 생활영어 <숙성반-초급/중급>
○기초가 없어도 OK

강사 통역 중

★ 개인 및 그룹(3명 이내) ★ 배짱영어(네이버 밴드)
늦었다는 생각은 인생의 포기다

위치: 대연동 대연성당 후문 앞 T. 010-4564-2972

댄스스포츠 디엘댄스스쿨

어르신 건강 댄스 단체반 모집

반	요일·시간	자이브, 룸바, 차차차	3월 4일 개강 각 3만원
1반	월·수·금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2반	월·수·금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왈츠, 탱고	

* 7주년 기념 바이블트 중(대민봉사 학원비 할인)
* 사교댄스 숙성 완성반

대연역 5번 출구 앞 25M 문의 051)624-9399
춤은 역시 평가·디엘댄스학원·입니다

한국댄스스포츠

댄스회원 수강생 수시 모집

■ 4월 오픈 강좌

요일	시간	과목	수강료
화·목	11:00~12:00	월링댄스	3만원
수·금	11:00~12:00	댄스스포츠(자이브, 룸바, 왈츠, 탱고)	3만원

* 자유회원 모집(월 2만원)
댄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시간 관계 없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연동 못골시장 롯데리아 4층 한국댄스스포츠
010-3589-0646 / 010-4550-2549

2019 고심정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3월 7일 개강

알고 따르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알고 따르면 더 깊은 행복을 알게 됩니다.

기초교리반(6개월과정) 매주 목요일 [저녁7시]
불교학과반(1년과정,포교사자격증반) 매주 화요일 [저녁7시]
경전반(3년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접수: 2019년 1월 1일부터 (수시접수) - 문의: 051-464-8450
- 위치: 지하철1호선 중앙동역 13번 출구

무료교육 남부야학

성인수강생수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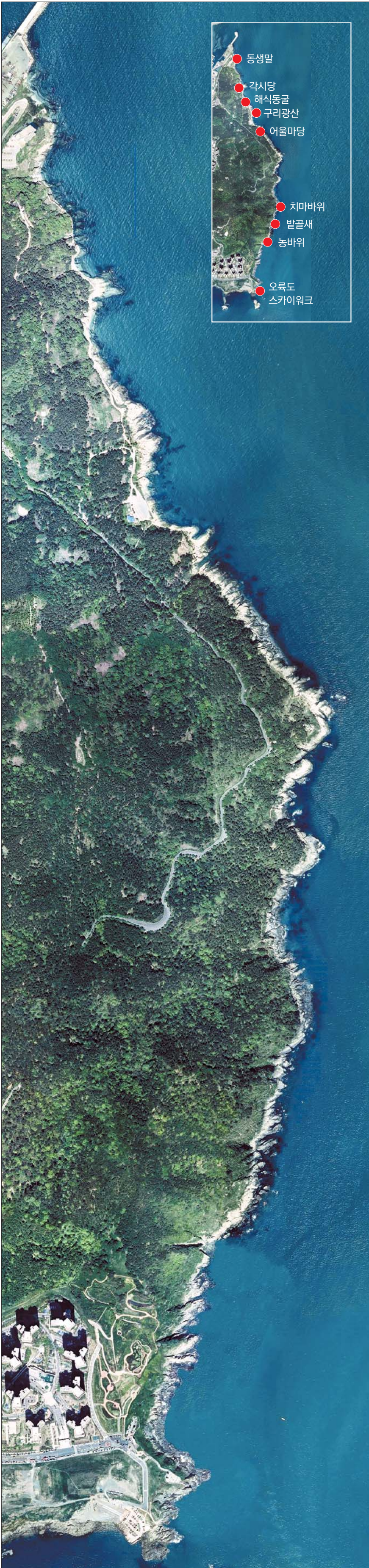
한글 기초반 : 성인문해교육

중.고등부 : 중.고등 검정준비반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화,금10-13시)

48년전 통의 비영리민간단체 남부야학

문현3동 주민센터 인근 가원밥상 지하1층
☎622-1205/010-4543-4746



동생말~오륙도스카이워크 4.7km, 약 2시간 30분 소요